

◎ 교회목표 ◎

- 1. 천국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장애우 주일 특별 메시지

장애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0%가 장애우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는 15% 캐나다는 23%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3%로 되어 있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 버려져 감춰진 장애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장애우의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우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우 전체의 77.9%가 재활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축학아동 중 14%만 교육을 받고 15세 이상 장애우중 26.7%만 취업하고 그 중 85%가 극빈층에 속해있다. 장애우에 대한 이런 수준의 관심으로는 선진국 대열에는 물론이고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라고 자부하기조차 부끄럽다.

많은 이들이 장애우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이라는 미신적 생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산업재해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성경적 사고와 태도로 장애우를 천대하거나 비하시킬 수 없다.

장애우들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 이것은 천대하거나 무관심한 것 보다는 나은 것이나 동정심은 도리어 장애우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서 동정해서 한 푼 던져주는 식의 대우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우가 된 것은 자기책임(선택)이 아닌 한 다른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피부색 때문에 차별대우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장애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우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우라면 우리 모두가 그들의 장애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와 같이 장애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리고 재활과 복지에 노력을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하는 동정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찾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가진 이들이다. 구약시대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신약시

대에는 선을 보고 행치 않는 자를 악한 자로 적주하셨다.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있는 이들의 권익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익을 찾는 데 앞장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만난 이들 중 50% 이상이 장애우들이었다. 제자들의 사역도 결국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저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처럼 저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면 언어의 환경이 유사하면서도 남다른 성격을 가진 장애우를 땅 끝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200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우 복지 시설 현황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활시설, 직업시설, 재활시설 등 총 979개의 시설에 29,948명을 수용할 정도다. 인구 10%로 잡고 450만 장애우를 위하여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국가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사랑의 집을 건설하여 불편한 장애우들의 복지시설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중윤 특사(서울교회 담임)

선교사 후보생 모집

5월10일-5월30일까지

우리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에 따라 해외 복음선교를 위해 헌신할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한다.

선교사 후보생 모집기간은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이고 서류교부 및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모집 분야는 정규 선교사와 전문인 선교사로 00명을 모집한다. 파송예정 지역은 아시아 및 중동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선교사로 신청할 이들은 해외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교사로서 소명의식이 분명한 본 교단 소속 목사 또는 평신도 부부를 원칙으로 한다.(단, 우리교회가 인정하는 교단 및 선교단체가 추천하는 이도 가능하다.) 또한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출발 전 우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출석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 하시는 하나님께 감

사하며 전 세계에 복음이 끝까지 퍼져나가도록 기도한다. 선교사 후보생 신청을 할 이들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서(소정양식) 각 1부
2. 이력서 각 1부
3.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4. 소속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1부
5.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 이상)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전 가족 건강진단서 각 1부
8. 자격증 사본 각 1부(전문인 선교사의 경우)

※ 소정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에서 볼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회 2005년 봄시즌 화요정오음악회 및 초청연주회

2005년 5월17일 - 6월14일(매주 화요일)

일 자	연주자
5월 17일(화) 정오	이성심 오르간 독주회 (서울신대, 한세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5월 24일(화) 정오	한은미 오르간 독주회 (한양대 겸임교수, 이와여대 출강, 영락교회 오르가니스트)
5월 31일(화) 정오	박준호 오르간 독주회 (장천 쿵클 1등, 최연소로 다수의 국제 쿵클 참가, 지구촌 교회 오르가니스트)
6월 7일(화) 정오	오자경 오르간 독주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6월 14일(화) 저녁 7시30분	곽동순 오르간 독주회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교회 오르가니스트)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 한창

오는 5월5일(목) 밀알학교에서 열리는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준비위원회는 응원단장을 확정하고 실행위원까지 임명된 조직표와 단체경기종목을 순례자에 게재한다. 각 팀은 단체 구기종목인 족구, 배구, 농구를 미리 연습하여 축제 당일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는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위원회는 축제 준비를 위해 20일(수) 현장을 사전답사한다.

확정된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조직은 다음과 같다.

· 6회 한마음 한가족축제 준비위원회 조직표 ·

- 대회장: 이종운 목사 · 준비위원장: 김세재 장로 · 지도: 오정식 목사 · 지도위원: 당회원 전원
- 청팀(1-7교구)단장: 임훈규 장로 ★ 청팀 응원단장: 김민철
- 백팀(8교구-14교구)단장: 노문환 장로 ★ 백팀 응원단장: 조남현

부 서	부 장	차 장	실 행 위 원
기획부	이복규장로	우지원집사, 오형철집사	김중근, 김광룡, 강석우, 노장훈
진행부	박두호장로	오광환집사, 최형철집사	이강인, 최양진, 이종창, 홍창배, 차도훈, 안준홍, 정승룡, 최요섭
심판부	임상현장로	김금준집사, 김대웅집사	최규초, 유기찬, 장두형, 은기장, 주동재, 이근배
홍보부	전기설장로	정인주집사, 김시환집사	신동기, 최차순, 유명희, 고은실
기록/시상부	홍성주장로	황정인권사, 오승민집사	장낙희, 이계홍, 유형석, 한상준
재정부	신용식장로	탁경준집사, 양춘경집사	유승순, 송인권, 원용범, 전광영, 박찬성, 이진구, 유관모, 홍일성, 이우진, 장인원
등원부	박두영장로	최광성집사, 윤숙희집사	각 교회학교 부감, 각 교구간사
시설관리부	최학인장로	이승우집사, 조철기집사	이양철, 유승상, 진교남, 윤요섭, 정치는, 이길재, 정수환, 임병진, 이인근, 김영진
봉사부	이관규장로	이동만집사, 한중우집사, 이혜순권사, 이영희권사	윤은식, 김광래, 김상배, 신현영, 이병현, 윤태욱, 이준호, 이은희, 최종희, 채경희, 박순복, 김숙자, 이미숙
의료부	하인선집사	정동호집사, 안인호집사	오종원, 박동원, 김영주
차량안내부	조정식장로	정동학집사, 우상태집사, 유근중집사, 한길동집사	차량안내위원 전원
음악부	박정선장로	김성준집사, 최차순집사, 노재균회장, 황유석회장	대학부 및 청년부 임원

- 심사기준: 참가율(참가자 수/제적인원): 2,000점
경기력: 2,000점
응원점수: 1,000점 총계: 5,000점
- 유니폼: 각 교회학교 및 다락방을 통해 축제참가 예정자에 한해 1인 1매 판매(4/17-24 사무국 및 교구 간사실 접수)

- 구기종목:
▶ 족구: 1회전-목사(1), 장로(1), 성인(3), 중·고생(1)
2회전: 울스타전
3회전: 시범전(울스타 vs 디아스포라부)
- ▶ 배구: 목사(1), 장로(1), 집사(3), 중·고등부(1), 대청부(1), 여성(2)
- ▶ 농구-중·고등부(중학생 2명포함) 전·대·청부전

금요선교집회 및 기도회

4월22일(금) 오후7시30분 101호

전도위원회(위원장 윤찬오 장로)는 엘리야 남선교회(회장 송병석 집사) 주관으로 금요 선교집회 및 기도회를 22일(금) 오후 7시 30분 101호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번 금요 선교집회는 강사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문형숙 선교사를 모시고 모슬렘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듣고 선교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기도도 후원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8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8기 찬양대양성반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를 한다.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한 성도들은 각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8기 찬양대양성반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한중 권혁우 김광우 김광혜 김복승 김숙연 김순덕 김은성 김점숙 김치덕 김태봉 김형상 김희옥 남정숙 노송성 노현자 문혜심 박석현 박선민 박선정 박순복 박영실 박창은 박춘자 박형주 박희서 신은숙 안경모 양춘경 오서현 유희순 윤태욱 은기장 은성화 이경희 이귀숙 이남성 이명옥 이병현 이영기 이영옥 이용재 이인숙 이종열 이현승 채경희 최금숙 이상 47명

4월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4독: 최재춘 집사(6교구)
- 2독: 이윤영 권사(5교구) 김효순 권사(6교구) 김인식 권사(7교구)
- 1독: 박상희 집사(1교구) 김영희 집사(3교구) 이병현 집사(5교구) 김규희 권사(6교구) 장양일 집사(6교구) 하정자 권사(6교구) 고원순 집사(9교구) 최인수 집사(9교구) 정현숙 권사(10교구)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나눔의 집(교회 지하3층)이 개장되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나눔의 집은 가정에서 필요치 않은 의류 등을 기증받아 필요한 이들에게 저렴하게(1점당 1000원) 판매하고 있다. 물자절약과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의 집에 필요한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 봄을 맞아 가정에서 정리하다 나오는 필요치 않은 의류 등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귀하게 사용하게 된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깨끗이 합시다!

-스데반회 일동-

장애우 주일특별기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김복순 선생
(에바다부)

장애우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처럼 복된 날을 주신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늘

부족하기만 한 저를 사랑이 넘치는 서울교회로 인도하시고 에바다 부에서 사역을 주시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청각장애우이면서 에바다부를 섬기며 장애아(자녀)를 둔 엄마로 늘 주변에 장애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게는 장애우 주일이 누구보다 감회가 깊고 기다려지며 모든 장애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장애우 주일이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이 날 하루만 기뻐하며 행복해할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장애우로 자폐아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만큼 힘이 들지만 늘 곁에 계시어 힘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학교가는 진호를 꼬옥 껴안으며 장애우들의 좀 더 나은 미래와 교육과 행복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장애우의 날은 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재할의지를 고취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재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장애우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어 탄식하시며 병을 고치신 것이 성경말씀에 여러 곳 기록되어 있으니 장애우의 날은 예수님이 장애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집니다.

장애우 주일을 지키며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에바다부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 날로 성장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김지현(에바다부)

오늘은 장애우 주일입니다. 서울교회는 장애우 주일을 지키지만 아직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과 기사로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의 편이 되어 주셨고 힘없는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우, 모태신앙인으로 일찍 복음을 접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우들은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은 장애우들에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우 주일을 그 취지의 중요성을 잘 음미하여 지금도 암흑 같이 어둡고 답답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 교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머거리로 불리고 에바다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정상인과 장애우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성도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숙 권사(사랑부 부장)

서울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사랑부를 거쳐 간 수많은 교사들의 기도와 마음으로 사랑부는 이제 큰 변화의 문턱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학생들에서 이제는 서서히 교회인근의 재가학생들로 그 구성원이 바뀌어 가고, 감각기능의 장애와 인지발달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합해서 교육을 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이제는 인지능력에 따라 사랑부 학생들을 학년별 해당부서인 비장애학생들의 일반학급으로 통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학생들의 수송과 먹이고 돌보는 것이 교사회와의 중점사안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각기 다른 장애의 특성과 개인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영성훈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본질을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부학생의 고등부 통합교육은 2004년 하반기 월례어를 탄 한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하반신 감각기능에 일부 장애가 있을 뿐 그 외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비장애학생들과 더불어

교육을 받았는데도 새로운 환경의 그의 적응력은 뛰어났습니다. 표정은 갈수록 밝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는 안정과 생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고등부교사들과 학생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 또 사랑부 교사들의 뜨거운 기도가 사랑부 학생을 쉽게 그들과 하나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사랑부에서는 2005년 1월 첫 주일부터 8명의 학생을 고등부(4명), 중등부(1명), 초등부(1명), 유년부(2명)로 각각 올려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사랑부 교사들은 올려 보낸 아이들보다 일반학급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사랑부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시범기간을 끝내고 통합교육의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학급의 교사와 담당교역자 또 시범대상이 된 사랑부 학생 전원이 설문조사에서 100%가 통합교육을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또 통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통합교육이 오히려 비장애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

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사랑부가 있다는 자체가 장애우를 가장 애우와 떼어놓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장애우를 만드시지는 않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하는 서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장애우 주일특별 기고

가서 그들을 도읍시다!



전인화 권사(2교구)

오늘 우리교회는 장애우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회에서는 매년 4월20일을 장애우의 날로 정하고 그날 하루 굉장하게 떠들며 매스컴을 탄다. 그러나 그 행사가 실제 장애우에게 무슨 유익과 보람이 있을까?

며칠 전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 있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 부부가 노점 장사를 하며 어린 두 자녀와 내 식구가 지하실 방에서 세로 근근이 살아왔다. 노점상 단속반에 걸려 칠십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

나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차일피일 지체되었고 독촉이 심하여 남편 농아인은 해당 구청에 가서 관계자에게 통사정을 했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니 해결책이 없었다. 방값도 삼십만원이 밀려 곧 내 식구가 거리로 쫓겨날 형편이니 벌금 칠십만원을 어찌 낼 수가 있었겠는가? 그날 그 농아인은 돌아가 자기의 노점 점포로 사용하는 트럭에 들어가 어린 두 자녀와 아내를 남겨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기 그지없다.

그럴 때 수어 통역자가 곁에 있어서 그를 도와 그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농아인 혼자 가봐야 필답으로 대화한다 해도 그들의 짧은 문장력으로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선진국들은 나라의 복지 시책으로 각 관공서나 기관, 은행, 곳곳마다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농아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짜증으로 대하고 죄인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가서 말하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내몰아 버리고 만다.

우리나라에 35-40만 명의 농아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통역사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급한 문제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 이런 사명일 것이다.

우리 서울교회의 젊은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신과 관심으로 예배대부 수화반에 와서 수어를 배워 농아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듣지 못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역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달려갈 길이 어디일까, 나라가 못하는 일, 세상 사람이 인하는 일, 교회의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선한 싸움이며 달려갈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 서울교회가 앞서나가며 많은 수어통역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주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예배다 하셨던 주님의 음성 오늘도 삼십오만 농아인들의 심령깊이 들려주소서.

신앙강좌1부 개강

신앙강좌 1부가 4층 402호에서 12시 40분에 새싹을 꽃피웠습니다. 아름다운 꽃놀이처럼 하늘의 신비로운 메시지가 김영환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으로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누리십시오.

찬양대 양성반 개강

4월24일(주) 2부 예배 후 (1시30분) 601호

동정

- 개업: 김참소망 성도(2교구) 서울CL 치과 포스코사거리 포스코빌딩 옆 T.501-0027
- 다녀: 이정연 성도 변승균 성도 가정(12교구) 4월9일
- 득남: 김용수 윤영미 성도(신촌가정부) 4월14일
- 선임: 박찬성 집사(1교구) 한국기업인중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 승진: 김덕수 성도(1교구) 국민은행 본점 감찰부장
- 주간식당 봉사: 모세 남선교회(4월17일)도로가 여전도회(4월24일)
- 금주의 식사: 김영주 집사 이혜순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30분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만민에게 전도 - 세계선교대학 개강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에게로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을 파송하는 비전을 가진 우리교회는 교회내 선교분위기를 확산하며 선교사 발굴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세계선교대학을 개강하여 첫 날인 지난 14일(목)에 110명이 등록, 수강하였다.

이날 개강 예배에서 이중운 목사님은 마태복음 28:18-20절의 말씀으로 "선교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베풀어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설립 초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우리 교회가 설립 14년이 된 지금 세계 선교를 새롭게 출발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세계선교대학을 개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 목사님은 '교회와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선교 중심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수강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며 바른 교회관이 정립 되지 않은 선교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떠난 선교 구조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른 모델이 아니라고 했다. 선교가 부정되었을 때 예배는 약해질 것이고 교육은 단지 교화에 불과하게 되므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선교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열기가 더해지며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결론으로 선교와 교회, 선교사와 교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한 몸 된 모습으로 상호 격려 보충해야 하며 지상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회는 해외 선교를 위하여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기로 했고, 해마다 김치 신학세미나 개최하여 81개국의 교회 지도자를 초청, 이들을 훈련하였으며 국제적 선교단체, 국내 활동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선교대학의 강사진은 선교 전문가와 현지 선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23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501호) 다음 주까지 등록 가능하다. 허숙(편집부)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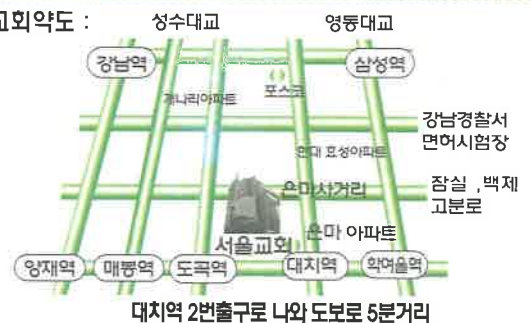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바른 신앙심으로 성기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